

<구할망 본풀이>

- 일시 : 2018. 08. 18

할머니가 탄생허기는 여산 친구월 초아흐렛날 금시상에 탄생을 힌 거라예.

탄생을 허니, 혼 설 적에는 어머님 젓 먹으멍 젓가슴을 두드린 췌. 두 설 적에는 아바님 안으난 아바님 상거슴 수염을 뽑은 췌, 세 설 네 설 나난에 할아바지 할마니 담배통 넘은 췌. 대으섯 설 나가난 널어 논 날레 다 허꺼불고 동네사름 말 곱아 대답헌 췌. 거난 문딱 어멍 아방 일가방상 동네방상이 불효가 뉘분거라

너는 불효족식이니까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다. 무췌설갑 채와서, 무췌설갑 안트레 들여놓고 상거슴 통췌를 중그면서 물에 띠우면서 곤는 말이,

“임백나라 임박사님이 췌문췌차를 험서.”

영 해뉘. 물 아래 띄웠어. 애기씨를 돌아다가 오죽해야 경 험거라게 담안 보내난, 물로 삼년, 절로 삼년, 브름 삼년, 구름 삼년, 물 알르로 물 우이로 텡긴거라. 동강동강, 경 허난, 막 멩 텡긴 거주게.

뎡 텡기단 임백나라 임박사님네가 애기가 엇어서 무유허거든, 그래서 물가에 범당이 잇엇던 모양이라. 거기서 백일기도 정성을 들어간거라. 정성을 들어 간, 백일췌 뉘는 날은, 아침이 ㄱ만이 보니, 물 한가운데서 무췌설갑이 탁 올라오거든. 올라오난, 물 알려레 탁 오니까 이젠 궁급허잖여. 속에 금사 들어신 지 은사 들어신 지 몰를 거 아니라. 딱 올안 보니 하늘 아래 고운 아기씨가 그 안네 잇인 거라. 게난 딱 나오난에

“당신은 귀신이요? 췌인이요? 귀신이건 하늘옥황드레 도오르시고 췌인이건덜랑 말을 곱으렌.”

허난, 그 할망이 곤는 말이,

“귀신이 어떻게 몸천을 허고 말을 곱습네까. 나는 동경국에 띤님애기웨다.”

“어뎡허난 여기 와서넨?”

허난, 사실 말을 곱은거라. 곱으난에,

“췌불도 줍니다.”

해분거라. 할망이, 췌불도 줍니다. 허난 그뎡 이 임백나라 임박사 대감님광 부인님이

“아이, 우리 췌불 어시난 빨리 췌불을 줍서.”

“게민 알앗우뎡.”

췌불 췌을 내려신디 애기 내우는 법을 몰르거든, 이건 안 베왓거든, 임백나라 임박사 부인님이 애길 베언 ㄱ사도 곱앗주만은 열 덜이 넘어가도 안 나와가난 막 죽어가거든. 죽어가서, 임백나라 임박사 대감님이 금바랑 은바랑 즈지바랑 옥바랑을 들러받아 높은 산에 올른 거라. 동악산, 서악산, 남악산, 북악산을 올르멍 바랑을 막 천 올린거라. 우리 살려줍췌. 천 올리니까 하늘옥황에서가 허는 말이, 지부스천왕이 느려사면서 허는 말이, 옥황상전님이 지부사천왕을 불러다가,

“어째서 인간에서 처량한 바랑 소리가 올라오겠느냐?”

영 허니까,

“그게 아니고 임백나라 임박사 부인님이 애기를 베어서 테독곶이 배가 불어도 해산을 못해서 죽을 지경이 뉘엇습네다.”

허니까, 그때 옥황상전님이 명진국뜨님애기를 불른거라.

“너 가서 해산을 허고 와라. 애기 나와 뵙 오라.”

“알앗수덴.”

내려완에, 애기어멍 돌아단 완 보난, 죽엄거든.

애기어멍 돌아단, 금산이불 길안 문막 헤두고, 금실 곁은 손으로, 은실 곁은 손으로 다 썰 어가니 애기가 탄생헛거든. 애기 울음소리도 나곡허난, 옥황드레 올라가는 거라. 옥황에 명 이난 경만 헤여뵙 가민 뵙여.

가단 보니, 처녀물가에서 동경국뜨님애길 만난거라. 둘이 만남 보니, 얼굴도 곁은 거 닳 고, 므음도 곁은 거 닳고, 말도 곁은 거 닳아.

“읍서. 통생명 허게.”

허난,

“나는 명진국뜨님애기우다. 누게 췌?”

허난,

“나는 동경국의 뜨님애기우다.”

딱 넘어가젠 허난,

“어떻헛 명진국뜨님애기 옷에서 핏네가 남수과?”

“임백나라 임박사 부인이 해산을 못하니 오늘 강 해산을 헤 뵙 올라감수다.”

경 허니까, 막 부애가 난 거라. 이 동경국 할망이, 개 곁은 년, 췌 곁은 년. 막 말로, 대동 편 청뎃썩에 목걸러 죽일 년이엔 막 웨가난, 이 명진국할마님은 어질거든.

“경 허지 말앙, 옥황상전님 올라 강 판단을 허젠.”

젠, 옥황상전님신디 딱 가니까 옥황상전님은 분간을 못 허는 거라.

“너네 어떻 얼굴도 곁으고, 므음도 곁으고, 말도 곁으니?”

안뵙젠. ㄱ만이 생각허단

“너네 췌 씨방을 타단 췌을 싱거보라.”

경 허니까,

“알앗수덴.”

할마님이, 명진국이 할마님이, 이 대목에서 자꾸 나오는 말이주만은, 싱그니 불리 불리, 가지 가지, 송에 송에 스만오천육백 가지 동드레 서러레 막 곱닥허게 번성이 뵙가. 동경국 할망은 췌을 싱그난, 크지도 안 헐 거 불리도 안 번을 거, 췌도 잘못 핏당 털어져불거. 막 부애가 난거라.

“느네 일랑 느네 알앙 허렌.”

옥황상전님은 올라산 거라. 계난, 이 동경국 할망이 돌아사명 제일 큰낭에 상가지 췌을 딱 꺾어뵙단 말이여. 그 법으로 우리 옛날은 우리 맞이칠 뵙 경 헛네다. 상가지, 중가지, 하 가지, 계난, 큰아덜에, 셋아덜에, 죽은아덜에 이런 아덜에 일가방상에 췌 떨어지게 맵서. 췌 떨어진 건, 애기 열다섯 십오세에서 저승 가는 게 췌 떨어지는 거라. 췌 떨어지지 맵서. 경 허영 막 빌어. 췌 허니, 할마님이 허는 말이, 명진국할마님이 허는 말이, 계난 동드레 서드 레 췌을 막 꺾어가는 거라. 경허국 애기어멍 애기 베민 석덜 백일만이 물 흘러, 유산뵙게 멘들아불고, 또 태어나민 서너네 설 뵙가민 저승더레 돌아가불고, 서천췌뵙더레 돌아가불고. 밤 역시, 낮 역시, 더운징, 단징, 열징, 정세, 정풍 다 불러줄 거 아니라. 경 허난, 할마님이 허는 말이,

“계민 나가 지생기 갑도 주마. 샷바 ㄱ슴도 주마. 곁레 ㄱ슴도 주마.”

영 허난,

“경 허렌.”

“늘랑 저승 촌질 허고, 날랑 이승 촌질 허겐.”

허연. 화헨허겐 허연, 이 대목에서

“할마님이 받다 남은 잔은 동해용궁할마님이 받으네다. 동해용궁할마님이 받다 남은 잔은 멩진국할마님이 받으네다.”

허민, 요디 잔 허나 허고 저디 잔 허나 허고 바짜. 요건 소미가 바짜근에 딱 뇌근에 탁치면, 웨면

‘아, 이제는 이 집이 악심은 막아졌구나.’

영 헤근에, 이 대목에서 할마님이 저승 촌지가 웨고 이승 촌지가 웨고,

이 쪽드레 완보니까 할마님 상이 안 쪽드레 남주만은, 우리 남쪽드레는 예 절대 동이용궁 할머니 상 절대 안네 안 놓니다. 딱 상 출렁 베끼디. 그 할망은 안네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. 악헌 할망이기 때문에, 우리 그 할망본 풀 때도 사설에도 보면 할마님은 안으로 상 받고 동경국 할마님은 베끼디서 상 받게 쉐겨라. 애기 나시에, 애기 나시덜은 밥을 못 먹거든 게민 죽을 쥐야 해. 원미 썩 올려. 것도 보시에. 보시에 원미 썩 올려. 밥도 올리주만은, 또 우리 쪽에는 아이 들고 가는 도령쳐서, 애기 들고 가는 아미쳐서영 곶이 온덴 허영 쳐서나 시 또 딱로 영 옆드레 출려 곶이. 건디 이건 우리 풍습이고, 요짜드레 그런 거 엇우다 예. 목안드레 그런 식은 엇고, 이게 곶이 낮엇고,

할마님 맞이를 처가지고 우리 남쪽드레 초감계에 할망질을 쳐붙어, 근데 요쪽드레 중간에 문딱 헤나야 문 올리곡 다 헤나야 할망질을 치곡, 동경국할망질 칠 때는 동이요왕 청요왕 서해요왕 백요왕 남이요왕 정이요왕 북이요왕 흑요왕 중왕 황요왕 영 헨 할마님이 나가는 질은 동이와당 광덕왕질, 서이와당 광인왕질이로구나. 아끈 듄복 한 듄복 질이로구나.

게면 이걸 헨 때는 시왕 대번지가 아니고, 이 할망 질 칠 때는 바당에 즘수들 메역 베는 호미 알지 예. 정계 호미라. 정계 호미 타당 비자. 영 비는 거라. 이 말을 곶아야 웨어. 비와야 웨는 거고, 다 비문 이제 칠팔월 든 셋브름 터지듯 썰물 나민 썰물 철에 들물 나민 들물 철에, 아끈 듄복 한 듄복에 막 밀어부난, 할마님이 갈 수가 엇거든. 갈 수가 엇영 허난, 어떤 사름은 동해용궁 무이낭상가지 꺾어당 양거림으로 치우자 영 곤는 사름도 있고, 요왕 지렛데로 파올리자 영 허는 사름도 있고,

단지 또 허나 곶을 거는 우리가 할마님 올 때는 썩지로 밀업수다, 처서영맞이 헨 때도 썩지로 밀업수다 허는디, 이 할망질 칠 때는 바당은 절이거든, 삼 절고개가 잇거든, 삼 절 건넌 고개, 파도가 치민 할망들 못 갈 거 아니짱. 게민 요왕 지렛델 들러반양 동해용궁할마님 나가는 질, 요왕 아까 곶앗듯이, 삼 절고개도 밀어 올리자. 좌크 밀민. 게 멩지단 브름에 잔잔 헨 거 아니라. 할머니가 간 덴 허영 잇고, 옛날에 구할망질은 따로 헤 가지고 처 낮우다. 따로,

우리 저쪽에서는 이 할망질 만 칠 때는 마당에서 꽃을 다 만드야. 동박섭에 뎃섭에 곶이 묶어근에 마당에 멩석으로 짝 허여. 흥 쪽에 아홉 개씩 짝허게 허민 구할망 질을 다 처, 베끼디레 다 처가. 게민 싹 정 간 사름은 다시 들어오지 못허여. 게난, 사름을 흥 사름 더 빌 영가야 웨어. 그런 사름은 어떤 사름이냐허면 애기 엇인 사름 막 허드렛일 허는 사름. 워낙 곶인 거라서. 정 나가민 들어오지 못허여. 그 대신 그딘 쓸도 흥 말씩 뇌 쥐야 웨곡, 돈도 예를 들영 오만원 놀거민 십만원 뇌줘야 웨고, 모든 게 하영. 겐 잔뜩 지왕 보내불주게. 할마님은 안트레 치는 거난 즘순 내와줍서 헨 치는 거난, 경 허는 거고.

